

窓、

쉬는 時間마다

나는 窓역으로 합니다。

——窓은 산 가르침。

이글이글 불을 피워주소、

이방에 찬것이 설입니다。

단풍났 하나

멤 도나 보니

아마도 작으만한 旋風이 인게웨다。

그래도 싸느란 유리창에

해入살이 쨍々한 무렵、

上學鐘이 울어만 싶습니다。

一九三七、十月、

창

쉬는 시간마다

나는 창녘으로 합니다。

——창은 산 가르침

이글이글 불을 피워주소

이방에 찬 것이 서립니다。

단풍잎 하나

멤도나 보니

아마도 자그만한 선풍이 인 게외다。

그래도 싸느란 유리창에

햇살이 쨍쨍한 무렵

상학종이 울어만 싶습니다。

1937. 10.